

건강보건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이 스트레스 대처전략에 미치는 영향 : 학년과 성별의 다중집단분석을 중심으로

백유미*

¹중부대학교 원격대학원 교육상담심리학과

The Effects of Health Department Undergraduates' Self-efficacy on Stress-coping Strategies

: Focusing on multiple group analysis by grade and sex

Yu-Mi Baek*

¹Dept. of Education Counseling and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Cyber, Joongbu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건강보건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이 스트레스 대처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학년과 성별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이들의 조절효과를 파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하여 S대학 대학생 1,442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SPSS, AMO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과제난이도 선호가 회피중심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신감이 회피중심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조절효능감은 사회적 지지추구와 문제해결중심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피중심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선호와 스트레스 대처전략의 하위요인인 사회적 지지추구, 문제해결중심, 회피중심들 간의 영향관계에서 학년 별로 모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 간에는 모델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health related departments' self-efficacy on stress-coping strategies by setting up grade and sex as regulating variables and figure out their mediating effects. To attain the goal, a survey was conducted to 1,442 undergraduates attending S University, and the results went through analysis by using SPSS and AMOS. To sum up the study results, preference of difficult project exerted negative effects on avoidance-centeredness. Self confidence had negative effects on avoidance-centeredness. Self-regulating efficacy indicated positive effects on social support-orientation and problem solving-centeredness while avoidance-centeredness showed negative effects. Regarding effects among self-efficacy's subfactors, confidence, self-regulating efficacy, and preference for task difficulty, and stress-coping strategies' subfactors, social support-orientation, problem solving-centeredness, and avoidance-centeredness, there was difference found in the model by grade, but there was no difference found by sex.

Keywords : Self-efficacy, Stress-coping strategies

1. 서론

오늘날 대학생은 시기적으로 볼 때 청소년기 후기에 속하면서 동시에 성인기의 입문기로서 자아정체감 확립

에 중요한 시기일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와는 또다른 발달과업과 교육적 환경에 적응해야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즉 나는 누구인가? 나의 갈 곳은 어디인가? 등의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과업 그 자체

*Corresponding Author : Yu-Mi, Baek(Joongbu Univ.)

Tel: +82-10-6787-0804 email: edubym@joongbu.ac.kr

Received June 18, 2015

Accepted August 6, 2015

Revised (1st July 21, 2015, 2nd August 3, 2015)

Published August 31, 2015

가 스트레스인 것이다[1].

자아정체감 형성의 결과로 건강한 자아정체감 정립에 실패할 경우 정체감 혼돈을 겪게 되고 역할혼미 상태에 빠지게 됨으로써 심한 심리적 불안정과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2]

대학생들은 중고등학교 시절 입시라는 통제되고 타율적인 생활을 하다가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을 저야 하는 자율적인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한다[3]. 실제로 많은 대학생들이 이성문제, 학업문제, 진로 및 취업문제, 대인관계 문제, 경제적 문제, 가치관 문제 등 적응의 어려움을 보인다[4]. 이러한 문제상황을 다루기 위해 주어진 상황에서 얼마나 자신의 능력을 믿고 대처해 나가는가 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 필요한데, 이것이 자기효능감이다[5].

Bandura에 의해서 제안된 자기효능감이란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한다[5] 다시말해 개인이 어떤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확신을 말하며, 어떤 활동을 선택하고 얼마만큼의 노력을 쏟느냐에 따라 자기효능감은 달라진다. 이러한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에는 과제난이도선호,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이 있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어떠한 과제 혹은 상황에서 자신감 있게 행동하고, 자신이 관심을 갖고 노력하면 그 과제나 상황에서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며, 실패 뒤에도 좌절감이 적고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하여 빨리 회복시키는 완충 역할을 하게 된다[6]. 또한 긍정적인 자기효능감을 통해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였으며[7], 인간의 모든 행동의 변화가 자기 준거적 사고인 자기효능감을 통해 중재된다고 하였다[5]. 자기효능감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문제중심적 대처를 사용하며, 문제중심적 대처가 높을수록 생활에 대한 부적응이 낮다고 보았고, 문제중심적 대처는 스트레스에 의한 경험보다 자기효능감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8]. 또한 자기효능감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스스로 자신의 스트레스를 관리, 조절함으로써 스트레스 관련 증상이 낮아진다고 한다[9].

대학생들이 호소하는 어려움 속에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자원을 이끌어내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성장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보다 적극적인 대

처전략의 개념이 필요하다. 대처(coping)란, 개인의 수용 능력을 위협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내적·외적 요구들을 다루려는 모든 인지적, 행동적 노력으로, 스트레스 사건과 적응을 매개하는 핵심 기제라 이해되어왔다[10]. Amirkhan은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 및 대상집단에서 개인의 성향에 따라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나는 대처 양식의 기본 구조를 3가지 범주로 제시하였다. 이들 세 대처 양식은 사회적 지지추구, 문제해결 중심, 회피중심으로 이러한 대처 반응으로부터 개인 특성 및 신체 정신적 적응과 대처 기제와의 관계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준다[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인 자기효능감이 스트레스 대처 전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자기효능감은 긴장을 유발하는 사건에 대한 대처방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설명되고 있다[12].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자아개념이나 자기신뢰감과 같은 자아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13]. 특히 자신감은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가장 영향을 미치며, 문제해결 능력과 행동에 대한 자신감과 신뢰감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응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4].

이러한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방식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영역에서 대상별로 연구되어지고 있다. 최근의 연구를 보면 일반 청소년이나 대학생[15], 간호학생[8], 유아교사[16]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있다. 그러나 건강보전 대학생들의 대상으로 한 자기효능감 연구는 거의 없다. 또한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과 스트레스 대처전략의 하위요인들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연구 또한 전무한 상태이다. 그리고 여러 연구들에서 성별이 자기효능감과 정체감, 진로성숙 등의 준거변수에 대한 조절변수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았다[17].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준비행동수준이 유의하게 높아졌다는 선행연구도 있다[18]. 따라서 본 연구에서 건강보건계열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 대처전략 간의 관계에서 성별과 학년의 조절효과를 예측할 수 있다.

건강보건계열 대학생은 건강과 보건의료와 관련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국가고시를 치루어야 하는 학습환경과 병원이나 건강관련기관에서 임상실습 및 취업상황을 경험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건강 보건계열 대학생들은 졸업 후 대부분 건강관련 기관과 보건

의료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건강보건의료 향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건강보건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도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대처에 대한 연구의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체계로서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 대처전략에 대한 관계를 살펴보고,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 대처전략 간에 영향관계에서 학년별, 성별간 차이가 있는지 알아봄으로서 향후 학년별·성별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와 취업지도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지침을 개발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논의를 근거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 H1. 과제난이도 선호는 사회적 지지추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 과제난이도 선호는 문제해결중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 과제난이도 선호는 회피중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4. 자신감은 사회적 지지추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5. 자신감은 문제해결중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6. 자신감은 회피중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7. 자기조절효능감은 사회적 지지추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8. 자기조절효능감은 문제해결중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9. 자기조절효능감은 회피중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0.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 대처전략 간에 영향관계에서 학년별로 모델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H11.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 대처전략 간에 영향관계에서 성별간 모델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연구설계

2.1 연구모형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이 스트레스 대처전략

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학년과 성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과제난이도 선호,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과 스트레스 대처 전략의 하위요인인 사회적 지지추구, 문제해결중심 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 살펴보고,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 대처전략 간에 영향 관계에서 학년별, 성별 간 모델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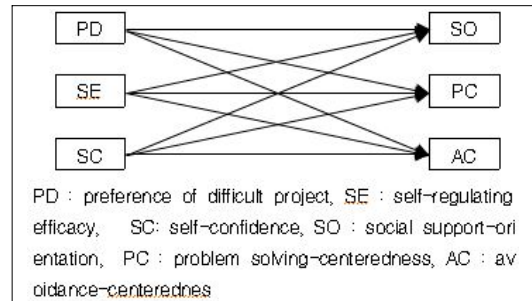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2.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기효능감 도구는 차정은[19]의 것을 김아영[20]이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척도를 연구하기 위해 개발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과제난이도 선호는 개인이 어떤 수행상황에 임해서 목표를 선택하고 설정할 때 어떤 수준의 난이도를 선호하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자신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 또는 신념의 정도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신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인지적 판단과정을 통해 조성되고 감정적인 반응으로 표출된다. 자기조절 효능감은 개인이 어떤 과제를 달성하고자 할 때의 자기조절, 즉 자기관찰과 자기판단 그리고 자기반응을 잘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효능기대라고 할 수 있다. 이 척도의 Cronbach's $\alpha = .80$ 이었고,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1$ 이었다.

스트레스 대처 전략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도구는 Amirkhan이 개발한 스트레스 대처 전략 검사지[11]를 신혜진, 김창대[24]가 변안한 설문지를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최근 6개월 동안 경험했던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 중 한가지를 떠올린 후, 그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항이 제시하는 대처 반응을 취했던 정도에 따라 5점 Likert 척도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대처 양식의 유형에 따라 사

회적지지 추구, 문제해결 중심, 회피 중심의 3가지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의 Cronbach's $\alpha = .84$ 이었고,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3$ 이었다.

2.3 조사설계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서 2014년 9월 1일부터 2014년 9월 15일까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응답자는 건강보조제열 대학생들로 총 1500부의 설문지가 배포되었으며 이중 무성의하거나 결측치가 있는 자료를 배제한 후 총 1442부의 자료를 추출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분석도구는 SPSS, AMOS를 이용하여 연구에 필요한 분석을 하였다[20].

3. 분석결과

3.1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본 연구는 비확률표본추출법 중 편의표본추출법 (convenience sampling)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의 Table 1과 같다.

Table 1. Research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General characteristics		Frequency(n)	Percent(%)
Sex	Male	575	39.9
	Female	867	60.1
Grade	1	462	28.4
	2	459	28.2
	3	372	22.9
	4	334	20.5

3.2 측정모델의 분석

Table 2는 제안모델의 단일차원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측정모델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이는 제안모델의 가설 검정을 파악하기 전에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의 지표들이 단일 요인모델에 의해 수용 가능한 적합도를 보이는가를 조사하기 위함이며, 타당성의 가장 엄격한 평가방법인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 역시 평가하기 위함이다. 측정모델의 최초 적합도의 경우, $\chi^2=1739.626$, $DF=237$, $p=.000$, $GFI=.921$, $AGFI=.900$, $CFI=.890$, $NFI=.875$, $IFI=.890$, $RMR=.047$, $RMSEA=.062$ 로 전반적으로 수용 가능한 적합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기효

능감의 하위요인인 과제난이도 선호의 3번, 4번 문항의 설명력이 매우 낮아 이를 삭제하고 재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chi^2=1032.439$, $DF=194$, $p=.000$, $GFI=.945$, $AGFI=.929$, $CFI=.934$, $NFI=.921$, $IFI=.921$, $RMR=.040$, $RMSEA=.052$ 로 향상된 적합도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측정모델의 경우 최초 24문항에서 2문항 삭제하고 22문항을 제안모델 분석에 이용하였다. 또한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자기조절 9번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 대한 표준화된 회귀계수값이 0.5이상으로 나타나 각 변인들의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집중타당성 (convergent validity)을 조사하기 위해 개념 신뢰도 (construct reliability)와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값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모든 값들은 일반적인 기준(개념신뢰도 0.7이상, AVE 0.5이상)을 충족시켜 집중타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21].

Table 2. Identified Factors Analysis of Measurement Model Analysis

Variable		F.L	S.F.L	SE	OE	C.R	AVE		
self- efficacy	preference of difficult project	1	1.000	.738	-	.368	0.850	0.742	
		2	1.325	.930	.128	.121			
	self- confidence	5	1.000	.692	-	.460	0.799	0.501	
		6	1.166	.774	.049	.385			
		7	.917	.617	.045	.579			
		8	.959	.671	.044	.474			
	self- regulating efficacy	9	1.000	.480	-	.511	0.827	0.552	
		10	1.258	.638	.080	.352			
		11	1.480	.766	.089	.235			
		12	1.337	.697	.082	.288			
	stress- coping strategies	social support- orientation	4	1.000	.659	-	.405	0.867	0.624
			3	1.307	.716	.052	.503		
problem solving- centeredness		2	1.568	.890	.054	.200	0.877	0.641	
		1	1.488	.818	.054	.340			
		8	1.000	.723	-	.371			
		7	1.138	.806	.039	.283			
avoidance-ce nteredness		6	1.111	.784	.039	.313	0.746	0.426	
		5	.959	.730	.036	.327			
	12	1.000	.568	-	.751				
	11	1.200	.714	.063	.496				
	10	1.347	.752	.070	.499				
9	1.166	.643	.064	.691					
Model- Fit		$\chi^2=1032.439$, $DF=194$, $p=.000$, $GFI=.945$, $AGFI=.929$, $CFI=.934$, $NFI=.921$, $IFI=.921$, $RMR=.040$, $RMSEA=.052$							

3.3 상관관계분석결과

판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값을 이용하였다. AVE값을 가지고 판별타당성을 평가하는 방법은 변수 간 모든 상관

계수의 제공값이 AVE값보다 낮으면 판별타당성은 확보되었다고 한다[22]. Table 3의 상관관계분석결과 가장 높은 상관계수 값이 사회적지지추구와 문제해결중심 간의 0.529이다. 이를 제공하면 0.279로서 모든 AVE값이 이 값보다 크면 판별타당성은 확보하였다고 한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모든 변인들의 AVE값은 0.279이상의 값으로 나타나 판별타당성 역시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Table 3. Inter-Construct Correlations

Scale	Inter-Construct Correlations					
	1	2	3	4	5	6
1.PD	1.00					
2.SC	-.278	1.00				
3.SE	.022	-.085	1.00			
4.SO	-.020	-.002	.169	1.00		
5.PC	-.002	-.034	.389	.529	1.00	
6.AC	-.062	-.027	-.207	-.040	-.148	1.00

3.4 인과관계 검증결과

본 연구에서는 설정한 연구 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L)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모델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적합도 검증결과 보면, $\chi^2=1039.045$, $DF=196$, $p=.000$, $GFI=.95$, $AGFI=.929$, $CFI=.934$, $NFI=.920$, $IFI=.934$, $RMR=.041$, $RMSEA=.051$ 로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으로 수용가능한 적합도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검증 결과 Table 4와 같이 나타났다. 총 9개 가설 중 5개 가설이 채택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과제난이도 선호가 회피중심에 통계적 유의수준하에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2.410$, $p=.016$), 자신감이 회피중심에도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2.010$, $p=.044$). 또한 자기조절은 스트레스대처전략의 세 가지 하위요인인 사회적지지추구, 문제해결중심, 회피중심 모두에 99%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사회적지지($t=5.392$, $p=.000$)와 문제해결중심($t=10.703$, $p=.000$)에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피($t=-6.310$, $p=.000$)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나머지 변수들 간의 영향관계인 과제난이도 선호와 자신감이 사회적지지추구, 문제해결중심에 미치는 각각

의 영향관계는 통계적 유의수준하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Statistic Results of the Hypothesis

Hypothesis	S.R.W	R.W	S.E	C.R.	p
PD → SO	-.018	-.022	.025	-.748	.454
PD → PC	-.010	-.010	.028	-.355	.722
PD → AC	-.068	-.075	.028	-2.410	.016*
SC → SO	.006	.007	.027	.211	.833
SC → PC	-.002	-.002	.030	-.074	.941
SC → AC	-.062	-.067	.031	-2.010	.044*
SE → SO	.242	.170	.045	5.392	.000**
SE → PC	.642	.393	.060	10.703	.000**
SE → AC	-.336	-.218	.053	-6.310	.000**
Model-Fit	$\chi^2=1039.045$, $DF=196$, $p=.000$, $GFI=.945$, $AGFI=.929$, $CFI=.934$, $NFI=.920$, $IFI=.934$, $RMR=.041$, $RMSEA=.051$				

* $p<0.05$, ** $p<0.01$.

3.5 다중집단분석 검증결과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과제난이도 선호,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과 스트레스대처전략의 하위요인인 사회적지지추구, 문제해결중심, 회피중심 변수들 간의 구조적 관계에 있어 학년별(1, 2, 3, 4학년) 집단과 성별 집단에 따라 모델 간 차이유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5는 본 연구의 모델에서 학년별(①=1학년, ②=2학년, ③=3학년, ④=4학년) 변수의 다중집단분석결과이다. 전반적으로 비제약모델이 제약모델보다 더 좋은 적합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약모델의 χ^2 은 2111.750($df=808$)이고, 비제약모델의 χ^2 은 1915.946($df=784$)로 자유도의 차이는 24이고 χ^2 의 차이는 195.804로 나타났다. 자유도가 24일 때 유의수준 0.05의 임계치는 36.74로 차이값이 임계치보다 높게 나타났으므로($p=.000$), 집단 간 경로의 차이는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Table 5. Multiple group analysis result by grade

Model	χ^2	df	p	RMR	GFI	AGFI	CFI	NFI	IFI	RMS EA
Constrained	2111.750	808	.000	.069	.896	.870	.904	.855	.905	.032
Non-constrained	1915.946	784	.000	.052	.904	.876	.917	.868	.918	.030
Model-comparison	195.804	24	.000	-	-	-	-	-	-	-

Table 6은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과제난이도선호,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과 스트레스대처전략의 하위요인인 사회적지지추구, 문제해결중심, 회피중심 변수들 간의 구조적 관계에 있어 학년별(1, 2, 3, 4학년) 집단에 따른 경로 차이 검정결과이다.

먼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모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자신감이 회피중심에 미치는 영향관계와 자기조절이 문제해결중심에 미치는 영향관계이다. 이 중 자신감과 회피중심 간의 영향관계에서 1학년과 2학년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3학년과 4학년은 정(+)의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제난이도선호와 사회적지지추구는 2학년에서만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고, 과제난이도선호와 문제해결중심은 4학년에서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과제난이도선호와 회피중심은 1학년에서만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자신감과 문제해결중심은 2학년에서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조절과 사회적지지추구는 1학년과 3학년에서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신감과 사회적지지추구간의 영향관계와 자기조절과 회피중심간의 영향관계는 모든 학년에서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6. Analysis result by grade

Path	1Grade	2Grade	3Grade	4Grade
PD → SO	-.053 (.383)	-.121 (.031 [*])	.092 (.219)	-.016 (.835)
PD → PC	-.200 (.001 ^{**})	-.117 (.033 [*])	.193 (.006 ^{**})	.050 (.485)
PD → AC	-.152 (.020 [*])	-.039 (.483)	.111 (.144)	-.014 (.847)
SC → SO	-.041 (.498)	.073 (.227)	.094 (.277)	-.049 (.489)
SC → PC	.098 (.096)	.171 (.005 ^{**})	-.108 (.178)	-.115 (.095)
SC → AC	-.479 (.000 ^{**})	-.455 (.000 ^{**})	.460 (.000 ^{**})	.358 (.000 ^{**})
SE → SO	.190 (.006 ^{**})	.041 (.538)	.265 (.016 [*])	.119 (.148)
SE → PC	.277 (.000 ^{**})	.208 (.002 ^{**})	.373 (.000 ^{**})	.269 (.001 ^{**})
SE → AC	-.036 (.585)	-.005 (.938)	-.132 (.200)	-.104 (.206)

*p<.05 **p<.01

Table 7는 본 연구의 모델에서 성별(①=남자, ②=여자) 변수의 다중집단분석결과이다. 전반적으로 비제한모델이 제약모델보다 거의 유사한 적합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약모델의 χ^2 은 1211.076(df=400)이고, 비제한모델의 χ^2 은 1200.706(df=392)로 자유도의 차이는 8이고 χ^2 의 차이는 10.370으로 나타났다. 자유도가 8일 때 유의수준 0.05의 임계치는 15.51로 차이값이 임계치보다 낮게 나타났으므로(p=.240), 집단 간 경로의 차이는 유의미하다고 할 수 없다.

Table 7. Multiple group analysis result by sex

Model	χ^2	df	p	RM R	GFI	AGF I	CFI	NFI	IFI	RMS EA
Constrained	1211.076	400	.000	.046	.930	.911	.928	.897	.929	.038
Non-constrained	1200.706	392	.000	.045	.930	.910	.928	.898	.929	.038
Model-comparison	10.370	8	.240	-	-	-	-	-	-	-

비록 다중집단분석결과 모델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성별에 따른 경로의 차이는 Table 8과 같이 나타났다. 자기조절과 사회적지지추구, 문제해결중심, 회피중심 간의 영향관계에서는 남자와 여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제난이도선호와 자신감과 회피중심 간의 영향관계는 남자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과제난이도선호와 사회적지지추구 및 문제해결중심 간의 영향관계, 자신감과 사회적지지추구 및 문제해결중심 간의 영향관계에서는 남자와 여자 모두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8. Analysis result by sex

Path	Male	Female
PD → SO	-.052 (.290)	-.028 (.509)
PD → PC	-.007 (.882)	-.002 (.952)
PD → AC	-.178 (.000 ^{**})	.016 (.718)
SC → SO	-.006 (.910)	.008 (.848)
SC → PC	-.007 (.886)	.010 (.803)
SC → AC	-.146 (.008 ^{**})	-.029 (.530)
SE → SO	.186 (.000 ^{**})	.170 (.000 ^{**})
SE → PC	.363 (.000 ^{**})	.407 (.000 ^{**})
SE → AC	-.245 (.000 ^{**})	-.203 (.000 ^{**})

*p<.05 **p<.01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전계열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과제난이도선호,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과 스트레스 대처 전략의 하위요인인 사회적 지지추구, 문제해결중심 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 살펴보고,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 대처전략 간에 영향 관계에서 학년별, 성별 간 모델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검증 결과 9개 가설 중 5개 가설이 채택되었다. 첫째,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과제난이도 선호가 스트레스 대처 전략의 하위요인인 회피중심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은 채택되었다. 이는 건강보전계열 대학생들은 어떤 수행상황에 임해서 목표를 선택하고 설정할 때의 과제난이도 수준이 높을수록 그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 될 것이라고 문제를 회피하려는 전략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과제난이도 선호가 높은 대학생이 학과 공부, 국가고시 및 실습에 전념할 때 현재의 스트레스 상황을 보다 긍정적으로 유도하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자신감이 스트레스 대처 전략의 하위요인인 회피중심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은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인지적 판단이 높은 건강보전계열 대학생일수록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를 회피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자기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 높으면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대처도 적극적으로 해결한다는 선행연구[9][12]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셋째,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자기조절효능감이 스트레스 대처 전략의 하위요인인 사회적 지지추구, 문제해결중심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회피중심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은 채택되었다. 어떤 과제를 수행할 때 자기관찰, 자기판단 그리고 자기반응을 잘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효능기대라 할 수 있는 자기조절효능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스트레스 대처 전략은 긍정적 대처인 사회적 지지추구, 문제해결중심을 주로 사용하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를 회피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넷째,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 대처전략 간에 영향관계에서 학년별 다중집단분석결과 모델간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모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자신감이 회피중심에 미치는 영향관계와 자기조절이 문제해결중심에 미치는 영향관계이다. 이 중 자신감과 회피중심 간의 영향관계에서 1학년과 2학년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3학년과 4학년은 정(+)의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제난이도 선호와 사회적지지 추구는 2학년에서만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고, 과제난이도선호와 문제해결중심은 4학년에서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과제난이도선호와 회피중심은 1학년에서만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자신감과 문제해결중심은 2학년에서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조절과 사회적지지추구는 1학년과 3학년에서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신감과 사회적지지추구간의 영향관계와 자기조절과 회피중심간의 영향관계는 모든 학년에서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유의하게 높아진다는 선행연구[18]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건강보전 대학생들의 학생생활지도와 취업지도에 있어 학년별인 관리지침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1, 2학년 때는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회적지지추구, 문제해결중심으로 문제를 대처하는 반면 3, 4학년 때는 시험과 취업에 대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현재의 문제를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회피중심으로 해결하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저학년에게는 구체적인 시험준비와 취업준비에 대한 교수학습법을 개발하여 적용시키고, 고학년에게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를 긍정적으로 유도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하고 조절할 수 있는 개인 및 집단상담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 대처전략 간에 영향관계에서 성별에 따른 다중집단분석결과 모델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성별에 따른 경로의 차이를 보면 자기조절과 사회적지지추구, 문제해결중심, 회피중심간의 영향관계에서는 남자와 여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제난이도 선호와 자신감과 회피중심 간의 영향관계는 남자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과제난이도 선호와 사회적지지추구 및 문제해결중심 간의 영향관계, 자신감과 사회적지지추

구 및 문제해결중심 간의 영향관계에서는 남자와 여자 모두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이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 등의 준거변수에 대한 조절변수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선행연구[17]와 다르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앞서 제시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연구대상 및 표본을 한 대학의 건강보건계열 학생들로 한정하고 있어 이를 일반화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다. 둘째, 스트레스 대처 전략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자아개념, 정서상태 등 스트레스 대처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며, 각 요인들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ferences

- [1] Erikson E. H,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 W.W.Norton & Company, Inc, 1969.
- [2] Pajares F, "Self-efficacy beliefs academic setting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66, pp. 543-578, 1996. DOI: <http://dx.doi.org/10.3102/00346543066004543>
- [3] E. H. Lee, "Life Stress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College Students: Testing for Moderating Effects of Coping Style with Structural Equation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9(1), pp.25-52, 2004.
- [4] J. H. Lee, K. Y. Jeung, H. J. Yu, "Effect of The Intergenerational Family Relationship, Self-Differentiation and Self-esteem of College student on the College Life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4(5), pp. 407-429, 2007.
- [5] Bandura A. "Self-efficacy :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 pp.191-215, 1977. DOI: <http://dx.doi.org/10.1037/0033-295X.84.2.191>
- [6] Chen G-Gully S & Eden D. Validation of a new general self-efficacy scale.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4(1), pp.62-83, 2001. DOI: <http://dx.doi.org/10.1177/109442810141004>
- [7] J. S. Kim, N. S. Pyo, "The relationship analysis between dance classes stress and self-efficacy of college woman major in dance",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45(6), pp.291-299, 2006.
- [8] Y. H. Shin, "The Effects of Stress,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on Coping and Maladapt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1994.
- [9] K. S. Han, "Self Efficacy, Health Promoting Behaviors, and Symptoms of Stress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5(3), pp.585-592, 2005.
- [10] Moos, R. H., & Schaefer, J. A. Coping resources and processes: Current concepts and measures. In L., Goldberg & S. BREZNITZ(2ND Eds.), Handbook of stress: Theoretical and clinical aspects, pp234-257, NY: Free Press,1986
- [11] Amirkhan, J. H. A factor analytically derived measure of coping: The Coping Strategy Indicat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pp1066-1075, 1990.1993.
- [12] S. Y. Min, S. K. Chaung, "Self Efficacy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5(3), pp. 299-307, 2006.
- [13] J. S. Kim, S. C. Kim, S. K. Yoo, A. W. Shin, "Factors influencing Stress Levels of Adolescents: With a Focus on the impact of Positive Self-concept and Self-confidenc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3), pp.103-126, 2011.
- [14] Y. S. Le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 Perfectionism and Worry : The Moderating Role of Problem Solving Confidenciy",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2008.
- [15] K. H. Suh, "Relationships between Stresses, Problem-Focused Coping, Upward /Downward Comparison Coping and Subjective Well-being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8), pp.217-236, 2011.
- [16] M. H. Lee,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Early Childhood Teachers' Self-efficacy on the Teachers' Creativity", The Korea Association of Child Care and Education, 61, pp.281-297, 2010.
- [17] H. S. Yoo, "The Longitudinal Effects of Personality Traits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ollege Life Adjustment of Participants in College Career Courses", The Korea Association of Yeolin Education, 22(1), pp.89-111, 2014.
- [18] H. J. Kim, "Effect of College Student's Ego-Identity on Vocational Attitude Maturity and Preparation Behavior", Social Sciences Research Center, 5, pp. 369-393, 2001.
- [19] J. E. Cha, "Study for the general self-efficacy scale develop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 Womans University, Korea, 1996.
- [20] A. Y. Kim, "The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of gender-specific self-efficacy and school subscales", inedita, 1997.
- [21] Hair, J. F. Jr., Anderson, R. E., Tatham, R. L., & Black, W. C., *Multivariate Data Analysis*, 5th ed., Prentice-Hall International, 1998.
- [22] Fornell, C., & Larcker, D. F.,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February), pp.39-5, 1981.
DOI: <http://dx.doi.org/10.2307/3151312>
- [23] H. J. No, *Social research and analysis by SPSS /Amos*, Seoul: hyeongseol Publisher, 2003.
- [24] H. J. Shin, C. D. Kim, "A Validation Study of Coping Strategy Indicator(CSI)",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logy*, 14(4), pp.919-935, 2002.

백 유 미(Yu-Mi, Baek)

[정회원]



- 2011년 9월 ~ 현재 : 중부대학교
원격대학원 교육상담심리학과 재직
중
- 2013년 3월 ~ 2015년 2월 : 세종
시 교육청 Wee-center 자문위원
- 2014년 3월 ~ 현재 : 한국코칭능
력개발원 이사
- 2014년 8월 ~ 현재 : 한국청소년
상담학회 이사

<관심분야>

집단상담, 가족상담, 성상담